

- 조사일자 : 2003. 2. 6.
- 조사장소 : 제주시 용담동 양창보 심방댁
- 조 사 자 : 김현선 외
- 구 연 자 : 양창보
- 채록(TAPE) · 전사 : 강정식

평대(坪岱)<sup>1)</sup> 가면, 부대각<sup>2)</sup> 하르방, 부대각 본풀이가 잇십네다.

부대각 하르바님 아바님 때엔 아기덜은 나는 게 아덜 삼형제(三兄弟)가 솟아났습니다. 이 아기덜이 혼술, 두술, 세술 어리고 미옥(迷惑)한 때는 모르고, 큰아덜은 열 다섯쯤 나고, 둘쨏 아덜은 열 슬쯤 나고, 셋쨏 아덜은 다섯 슬 적이로구나. 농사(農事) 농업(農業)을 허니, 소여 말이며 드르(들)에 내여놔 아이덜보고(아이들에게),

“가(가서) 소, 말덜이나 보라.”

영 허여 올려 보내여 두고,<sup>3)</sup> 부대각 아바님이 뒤를 따라서 ‘야네덜이 어떻게 허는가?’ 떡 간 베려보니(살펴보니), 큰 소를 하나 떡 들러서 던지면은 죽은아덜이 받고, 죽은아덜이 큰 소를 들러단(들어다가) 던지면은 큰아덜이 받고, 큰아덜이 또 소를 던지면은 둘쨏 아덜이 받고, 이렇게 헤염시니(하고 있으니). 세 성제는 ‘어리고 미옥(迷惑)한 아기덜이 저렇게 힘이 좋은가. 아이고 못 썰로구나.’

가만히 물러서 집이 모른 척 허고 와서, 그날 밤이 아이덜 삼형제가 누워 자는디, 아바님이 들어간 팔덜을 이렇게 들어보니, 아이고 조드랑이(겨드랑이) 알(아래)로 날개가 솟아났구나. ‘아이고, 이것덜 낫당은(놔두었다가는) 우리 부씨(夫氏) 가문(家門)이 망할 거난,’ 옛날 거 옷 허명(하면서) 다리는 윤디(인두) 불에다 달과(달구어) 놓고 뜨겁게 헤여 누워 자는 애기덜 그 날개를 가서 윤디로 지저 버리니, 큰아덜, 셋아덜은 죽엇구나.

‘죽은아덜 이거 어리고 미옥헌 거사(것이야) 무신 걸 알 꺼냐(것이냐).’ 그냥 내버리난, 죽은아덜이 점점점점 커가 열 다섯이 넘어가니, 평대서 펴작 허게 놀민(날면) 성안(城內) 오고, 성안에서 놀민 평대 가 느리고, 영 허영 혼 설 두 술을 더 지나가난, 흐를날은 집안안네 기일제서(忌日祭祀)가 돌아오란. 친척덜은 전부 제사 보레(보러) 오고, 펴작허니 시(市)에 가서 제주 성안 오란 이렇게 바레보니, 오양간(외양간)에 쉼막<sup>4)</sup>이라느디 소가 매여저시난, 도둑놈은 들어서 그 쉼 도둑질허여 가젠 들어오니, 그것이 성안 잇는 부대각 하르방은 그거를 보앗구나. 펴작허게 놀아간 그 도둑을 심언(불잡아서),

“너 이 집이 어떤 집인디 너 소를 도둑질 허레 왓느냐?”

심언 답도리(잡도리)<sup>5)</sup> 허여두고 소는 도둑질 못허연.

잇는 가운데 아이고, ‘난 여기는 살 수가 없구나.’ 펴작 허게 놀아드는 것이 장안, 한양(漢陽)

1) 평대(坪岱) :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.

2) 부대각 : 장사전설의 주인공으로 회자되는 인물.

3) 올려 보내여 두고 : 올려 보내두고, ‘올려’는 ‘한라산 쪽으로 올려’의 뜻. 평대리는 바닷가 마을이니 소나 말을 풀어 먹이는 곳은 마을 남쪽 높은 곳에 있기 마련이다.

4) 쉼막 : 외양간.

5) 답도리(잡도리) : 단속.

장안으로 들어갑디다. 들어가 산에서만 이레 놀고 저레 놀고 다녔더니(다니고 있더니), 흐를날은 방(訪)을 지어 부찌는(붙이는) 게 이 산에 국매(國馬)를 잇어, 혼번을 내려 오민(오면) 사람에게 해치고, 사람들을 죽여가는 국마가, 큰 말이 하나 있으니, ‘이 국마를 잡아주는 자가 있으면 천금상(千金賞)을 봉(封)허여주마.’ 방을 씌어 부찼 걸 보고 부대각 하르바님이 들어갓구나.

들어간,

“제가 잡아오겟습니다.”

“음, 잡아오면은 천금(千金)을 봉허여주마.”

경 허영 부대각 하르바님이 펴작 허게 가는 게 남산(南山)으로 올라가 베려보니(살펴보니) 우으(위)로 ㅎㅎ허게 내려오는 게 국마가 내려왓시난(내려오고 있으니), 주먹을 불끈(불끈) 쥐고(쥐고),

“내가 누군 줄 아느냐. 누군 줄 아느냐. 여기 와서 무렵(무릎)을 꿇어라.”

허여 호통을 허니, 말이 바바박 떨어면서 오란(와서) 떡 무릎을 꿇으니, 그걸 잡아 앓언(가지고) 어전(御殿) 상시왕(上試官)에 들어가,

“국매를 잡아십네다.”

“과연 기뻝(奇特)허구나. 니 소원(所願)이 무엇이냐?”

“군사(軍士)덜 삼천명(三千名)만 내여주고 군함(軍艦)을 서른 세척을 지어주십서.”

“무엇 허겟느냐?”

“혼번 대국(大國)을 치겟습니다.”

“그걸 그럴라면 흐는 수 엇이 다 출려주마(차려주마).”

군사 삼천명을 내여주니, 돌아앗언(데리고)

내려오는 것이            울진(蔚珍)<sup>6)</sup> 강진(康津)<sup>7)</sup>

삼십삼포(三十三浦)로 내려온다.

군함을 타고 진(陣)을 치고 대국을 치저(치자고) 허여 막 허던 중에 부대각 하르바님이 ‘아이고 이번은 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건가 죽어서 돌아올 건가. 가명(가면서) 선조(先祖)라도 혼번 돌아 보고 가는 게 조손(子孫)이 도리(道理)가 아닌가?’ 영 허여,

제주(濟州) 절도레(絶島로) 들어온다.

벨도(別刀) 수진포에 베를 떡 매고, 벳머리에 느려서 평대(坪岱)를 들어가 선조 산[墓]에 참배(參拜)를 허고, 겐(그렇게 해서) 오라가니(와 가니), 그 장수(將帥)가 뉘연 베를 타고서 진을 치레(치러) 가젠 허난, 평대 부칩잇 사름덜은 ‘저 사람 낫다가(놓아두었다가) 우리 부칩이 망혈 테니 우선 선조부떠 가서, 선산(先山)부떠 가서 우리 돌아보자.’ 선산에 떡 돌아보니 뒤에 바우(바위)가 흐나 장군(將軍) 모양으로 떡 혼 해 두 해 커가니, ‘그 바웃돌로 헤여 느는(나는) 하르방이 탄생을 허여시난, 이것부떠 부수와야 뉘겟구나.’ 허여, 메를 물메를<sup>8)</sup> 앓어들여 바우를 부수와 부럿구나.

6) 울진(蔚珍) : 경상북도 울진군(蔚珍郡).

7) 강진(康津) : 전라남도 강진군(康津郡).

8) 물메 : 돌이나 바위 따위를 두드려 쪼개는 데 쓰는 쇠팡망이.



경 허여, 대각 하르바님이영 대국을 치젠 베 우에 떡 올리니, 난데없이 일기(日氣)가 불순(不順)허여. 안개가 덩뚝(잔뜩) 지고(끼고) 베질을 흘 형편이 아니 되는구나. ‘이게 어떤 일인가?’ 흐룰이(하루가) 지나도 안개가 걷질 안 허고, 이틀이 지나도 걷질 안 허고, 혼 둘이 지나도 안개가 거듭질(걸어지지를) 아니 허여, 안개가 지난 이게 군사덜은 이제 다 굶어죽게 되고, 앓아 생각해 여보니, ‘안개가 아니라 나 눈이 어두운 게 아니냐.’ 그 산 영기(靈氣)로 그땡(그때)에 눈을 어둡져(어둡게 하여) 부러구나.

영 허여, 아이고 이 군사덜은 문(모두) 굶어죽게 똥난, ‘나부터 죽어부러야 이 군사덜이 살아날 거니, 죽어보자.’ 허여, 죽젠 허연 옥황(玉皇)에 등소(等訴) 등장(等狀)을<sup>9)</sup> 드는 게, “무췌설갑을 내리와 줍서.” 방석을 떡 내리우난(내리니), 물 우에 무췌방석이 둥굴둥굴 뜨난, 그 부대각 하르방은 펴작허니 그 무췌방석드레 떡 앓아, 그래도 물 알르레(아래로) 내려가질 아녀니(아니 하니),

“나를 누군 줄 아느냐. 어서 물 알러레(아래로) 인도(引導)허라.”

영 허여 서르르 허게 이제는 물 알러레 골라앗아(가라앗아).

부대각 하르바님이 바다에서 죽어 신체(身體)도 못 좇아. 경 허니 부칩이서는 그 하르바님이 신체는 못 좇으니 좋은 당(땅)에 들어간 헛 봉분(封墳)을 허고 비(碑)를 세와놓고 일년에 혼번 묘제(墓祭)를 떡 지난, 친족(親族)덜은 다 모여서 참배(參拜)를 험디다. 일본(日本)도 부칩이 족손덜(子孫)이 만이 가고 육지(陸地)에도 많이 잇고, 부산(釜山)에도 많이 잇고, 울산(蔚山)에도 부칩이 많이 삽니다. 허난, 그 집집마다 굿을 헐 때는 그 하르바님을 위로적선(慰勞積善)을 아니 허면은 덕(德)을 못 받는 법(法)이라. 영 허여 부대각 하르바님이 묵고뭍은(맑고맑은) 일월조상님으로구나.

— 濟州市 龍潭洞 男巫 양창보 口誦

현용준·강정식·김현선, 『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2006, pp.165-168.

9) 등소(等訴) 등장(等狀) : 여럿이 연명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억울한 사정을 적은 문서.